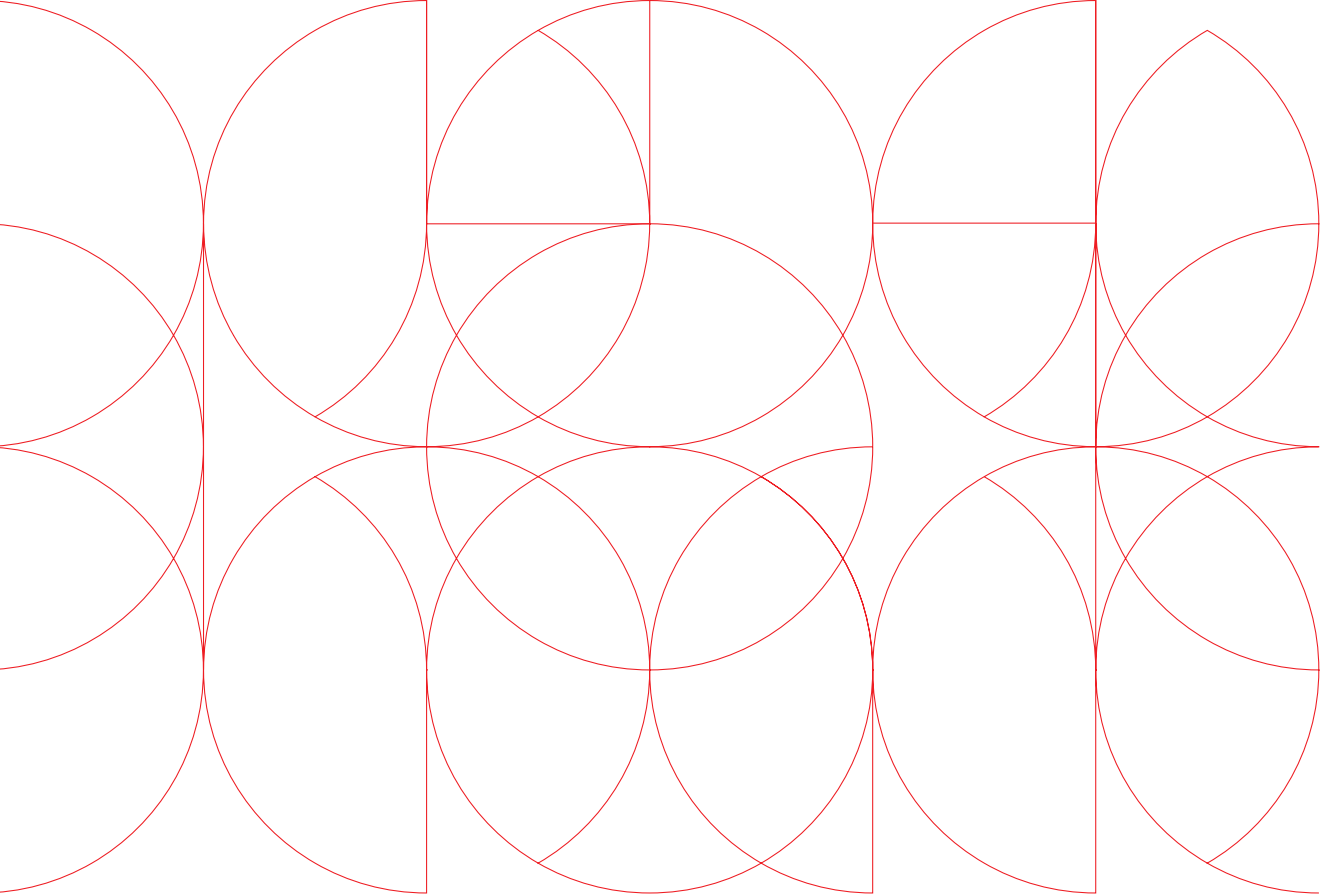


CONCERT OPERA

CARMEN

2026.4.18. SAT 19: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완전히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K www.kbssymphony.org

f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비제
G. Bizet

오페라 <카르멘> (콘서트 버전)
Opera <Carmen> (Concert Version)

PART I

⓪ 80'

Prélude
전주곡

Act I : A Square, in Seville
제1막 세비야의 광장

Act II : Lillas Pastia's Inn
제2막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

인터미션

Intermission

⓪ 20'

PART II

⓪ 55'

Act III : A wild spot in the mountains
제3막 산속의 밀수업자 은신처

Act IV : A Square in Seville (At the back, the walls of an ancient amphitheatre.)
제4막 세비야 투우장 앞 광장

⚡ 총 소요시간: 16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정명훈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26년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과 교향악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는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대 최초의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고, 2027년부터는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40여 종의 음반을 주요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다.

그는 200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다.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역대 최연소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를, 202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훈장 2등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악가상’을, 2013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재단으로부터 ‘평생음악상’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음악평론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1988년과 2015년에 각각 수상하였다.

Myung-Whun Chung

Conductor



카르멘 / 메조소프라노 알리사 콜로소바
Carmen
 Mezzo-Soprano Alisa Kolosova

알리사 콜로소바는 파리 국립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 국립오페라극장 등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온 메조소프라노다. 파리 국립오페라 ‘아틀리에 리릭’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영 싱어즈 프로그램’을 거쳤으며, 2010년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에서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로 모차르트 <베를리아의 해방>에 출연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빈 국립오페라 앙상블로 활동하며 <예브게니 오네긴> 올가, <나부코> 페네나, <마담 버터플라이> 스키키 등 주요 배역을 맡았고, 안드리스 넬슨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업해왔다. 최근에는 베로나 아레나에서 <카르멘>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돈 호세 / 테너 갈레아노 살라스
Don José
 Tenor Galeano Salas

‘황금빛 음색’으로 찬사를 받는 멕시코계 미국인 테너 갈레아노 살라스는 에바 마르톤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과 청중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바이에른 국립오페라를 비롯해 드레스덴 젬퍼오퍼, 콜론 극장 등 주요 극장에서 활동했으며, <라 보엠> 로돌포, <라 트라비아타> 알프레도, <카르멘> 돈 호세 등 주요 테너 레퍼토리를 노래해왔다. 또한 오라토리오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카르미나 부라나>, 베르디 <레퀴엠>, 베토벤 <교향곡 9번>, 헨델 <메시아> 등에 출연했다. 휴스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오브 보컬 아트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에스카미요 / 베이스 바리톤 김병길
Escamillo
 Bass Baritone Byung Gil Kim

베이스 바리톤 김병길은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오페라 석사 과정을 마쳤다. 독일 도이체 오퍼 베를린, 베를린 국립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를 비롯해 덴마크 왕립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바리 페트루첼리 극장, 쾰른 오페라 극장, 스페인 팔마 극장 등 유럽 주요 무대에서 활약했다. 그는 오페라 <로엔그린>, <나부코>, <호프만의 이야기>,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라 보엠>, <투란도트>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조역으로 출연하며 탄탄한 역량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국립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의 ‘피가로’ 역으로 예술의전당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링 국제 콩쿠르 1위, 아고라 리릭 국제 콩쿠르 2위, 벨베테레 국제 콩쿠르 특별상 등을 수상한 그는 현재 독일 도이체 오퍼 베를린 전속 주역 가수로 활동 중이다.



미카엘라 / 소프라노 김순영
Micaëla
 Soprano Soon young Kim

감성을 울리는 깊은 음색과 섬세한 표현으로 주목받는 소프라노 김순영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석사 졸업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동아음악콩쿠르 3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입상, 성정음악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으며, 2013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을 받았다.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를 비롯해 <마술피리> 파미나, <리골레토> 질다, <사랑의 묘약> 아디나, <호프만의 이야기> 안토니아 등 다양한 오페라 주역을 맡아왔다. 또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말러 <교향곡 제8번>, 모차르트·베르디 <레퀴엠> 등 오라토리오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정명훈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지휘자들과 협업하고, KBS교향악단 등 주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주니가/베이스 박기현

Zuniga
Bass Ki-Hyun Park

베이스 박기현은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로스톡 국립음악대학교 디플롬, 드레스덴 국립음악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이탈리아 로마 아레나 아카데미아 디플롬을 취득하였다. 드보르자크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및 다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02년부터 독일 할레 오페라하우스 종신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100여 편, 1,900회 이상의 공연에 출연하였고, 유럽 주요 극장과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레멘다도/테너 김재일

Le Remendado
Tenor Jaeil Kim

테너 김재일은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 브레멘 국립음악대학교 성악과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브레멘 시립극장과 자브뤼켄 시립극장에서 객원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성남문화재단,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카르멘>, <토스카>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요 배역을 맡아 활약했으며, 현재 전문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카이로/테너 위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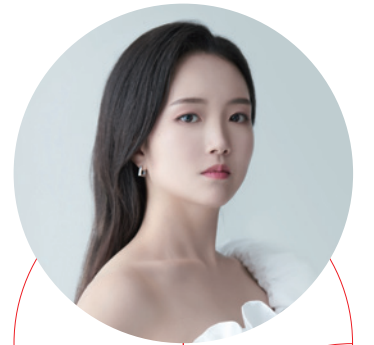
Dancaire
Tenor Jeongmin Wee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테너 위정민은 서던 캘리포니아 석사,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오스틴 오페라 단원을 역임했으며,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립오페라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 함께 <호프만의 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나부코>, <라 보엠>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무대를 이어왔다. 현재 <내방연구소> 소속 아티스트이자 세종대학교 음악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라스키타/소프라노 이해진

Frasquita
Soprano Hyejin Lee

소프라노 이해진은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실기우수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우등 졸업하였다.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와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였다.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쾰른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독일 마그데부르크 오페라극장 솔리스트를 역임하며 유럽과 한국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2026/27시즌 브라츠와프 오페라 <리콜레토> 질다 역 출연을 앞두고 있다.



메르세데스/메조소프라노 김가영

Mercédès
Mezzo-Soprano Grace Gayoung Kim

메조소프라노 김가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크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마인츠국립음대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국제 마리에크라야콩쿠르 파이널리스트를 비롯해 퀸소냐, 미래암헬린 국제콩쿠르 디플로마, 노이슈타트 마이스터징어 국제성악콩쿠르 3등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인천,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등에서 오페라 주·조역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현재 계원예술고등학교에 출강 중이다.



모랄레스/바리톤 유재언

Moralès
Baritone Jaeune Yoo

바리톤 유재언은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리트 & 오라토리오과 전문사,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아 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싱가포르 에스플레네이드 등 해외 무대를 비롯해 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등에서 오페라 주·조역으로 활약하였다. 현재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서 전문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노이오페라코러스 Noi Opera Chorus

지휘 겸 단장 / 박용규

노이오페라코러스는 'Noi(우리)'라는 이름처럼 하나 되어 기쁨과 희망의 음악을 전하는 것을 모토로 창단된 합창단이다. 실력 있는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국립오페라단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마농>, <삼손과 데릴라>,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봄을 여는 소리>, <굿모닝 가곡>, 성남문화재단 <세비야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시립합창단 Seongnam City Chorus

성남시립합창단은 1986년 수도권 최초의 시립 전문합창단으로 창단되어 4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합창단이다. 150여 회의 정기연주회와 1,800여 회에 이르는 국내외 연주를 통해 한국 합창문화의 지평을 넓혀왔으며, 성남시를 '합창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창의적 기획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합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클래식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공연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CBS소년소녀합창단 CBS Children's Choir

지휘 박병희

1994년 창단된 CBS소년소녀합창단은 9세부터 16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청아한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합창단이다.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과 협연하며 대통령 주관 국민 만찬과 국가 행사에서 공연하는 민간외교 사절단으로 활약해왔다. G20 정상회담, P4G 기후정상회의, 한미 우호의 밤 등 주요 국제 행사에 초청되어 무대를 펼쳤으며, 해외 공연과 사회봉사 연주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Credit

연출 엄숙정 Director Suk-jung Eom



연출가 엄숙정은 이탈리아 아퀼라 알프레도 카셀라 국립음악원 피아노과와 프로시네 리치니오 레페체 국립음악원 오페라 연출과를 졸업하고 로마, 발루차, 비라 스파다 등 유럽 주요 극장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오페라를 연출했다. 국내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등과 협업하며 활발한 무대를 이어왔고, 바흐와 바로크 오페라를 비롯한 폭넓은 레퍼토리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덕션 스태프

- 조명 김윤주
- 조명 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 장재원
- 분장 이정수(메인메이크업)
- 무대감독 박종훈
- 무대조감독 윤소윤
- 의상감독 박선미(현지무대의상)
- 의상조감독 김현지
- 조연출 한지현, 여지은
- 피아니스트 정호정
- 자막 오퍼레이터 흥진선
- 콘서트 매니저 최한희

플라멩코 댄서 이혜정(안무가), 최원경

줄거리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자유로운 집시 여인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 그리고 투우사 에스카미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집착, 그리고 파멸을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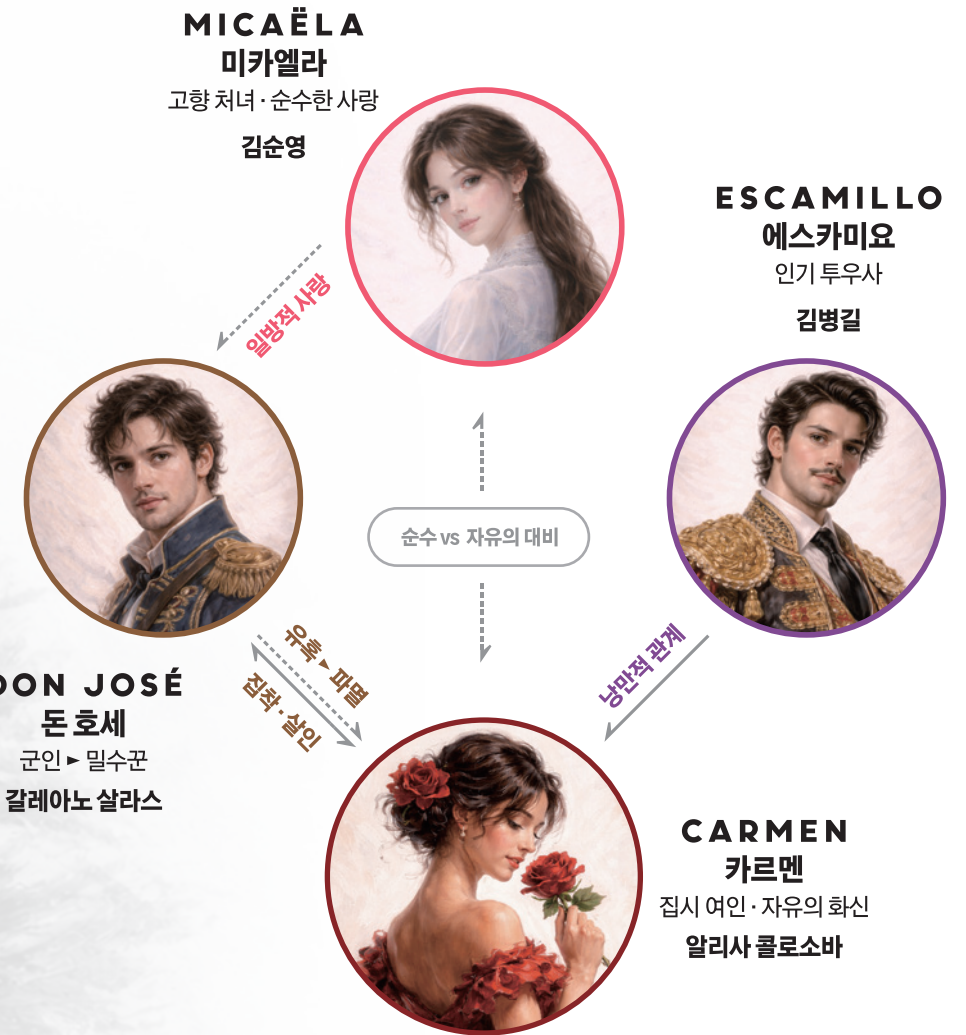
제1막, 세비야의 광장. 담배 공장 앞에서 병사들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골 처녀 미카엘라가 돈 호세를 찾아온다. 호세는 그녀를 통해 어머니의 소식과 고향의 정서를 떠올리며 평온함을 되찾는다. 그러나 곧 공장 여공들이 등장하고, 그 중심에는 매혹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이 있다. 그녀는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라 노래하며 남자들을 유혹하고, 호세 역시 그녀에게 강하게 끌린다. 이후 공장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체포된 카르멘은 호세를 유혹해 탈출에 성공하고, 호세는 그녀를 놓아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제2막,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 카르멘과 집시들은 흥겨운 밤을 보내고, 유명한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등장해 환호를 받는다. 카르멘에게 호감을 보이는 그는 새로운 긴장감을 만든다. 한편, 감옥에서 풀려난 호세는 카르멘과 재회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그녀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다. 카르멘은 그를 밀수꾼들의 세계로 이끌고, 결국 상관과의 충돌 끝에 호세는 군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떠난다.

제3막, 산속 밀수업자들의 은신처. 시간이 흐르면서 카르멘의 사랑은 식어가고, 호세의 감정은 집착으로 변한다. 카르멘은 카드 점을 통해 자신과 호세의 죽음을 예감하며 불길한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곳에 호세를 찾아온 미카엘라는 어머니의 위독함을 전하고, 동시에 에스카미요 역시 카르멘을 찾아 나타난다. 두 남자는 결투를 벌이지만 주변의 만류로 끝나고, 호세는 미카엘라와 함께 떠나면서도 카르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제4막, 세비야 투우장 앞 광장.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카르멘은 에스카미요의 연인으로 등장한다. 그때 군중 속에 숨어 있던 호세가 나타나 그녀에게 돌아올 것을 애원하지만, 카르멘은 끝까지 자유를 선택하며 그를 거부한다.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호세는 결국 그녀를 찔러 죽이고, 모든 것이 끝난 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카르멘>은 사랑을 이상화하지 않고, 자유와 욕망, 집착이 충돌하는 인간의 본능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카르멘이라는 인물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존재로, 그 강렬한 자유의지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된다.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시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콘서트 버전)

G. Bizet / Opera <Carmen> (Concert Version)

작곡	1838년-1875년
초연	1875년 3월 3일, 프랑스 파리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오프스테이지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타악기(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탬버린, 캐스터네츠),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16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가볍고 친근한, 그러나 “강렬한 태양의 오페라”

“습기와 우울을 날려버리는 강렬한 태양의 오페라! 풍요롭고 건축학적으로 완벽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음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오페라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카르멘) 악보를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R. 슈트라우스)

한때 바그너의 열광적 지지자였던 독일 철학자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뜨거운 사랑과 찬사를 받았던 작품, 19세기 후반 독일 작곡가 R.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의 열렬한 옹호와 지지를 받았던 오페라, 바로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Geroges Bizet, 1838-1875)의 <카르멘>(Carmen, 1875)이다.

‘19세기 프랑스 오페라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1875년 3월 초연되었을 당시의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사실 냉담하거나 적대적이었다고 할 만큼 비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내용과 인물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대본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스페인 남서부의 도시 세비야를 배경으로 집시와 공장 노동자와 같은 하층 계급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밑수꾼의 세계를 다루고, 여성의 성욕을 노골적으로 다루면서 무대 위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등의 내용은 오페라 평단과 소위 부르주아 대중 모두 이 작품에 등을 돌리게 했다. 다만, 비제의 음악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이국적 색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직관적이고 폭발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아리아, 이중창, 합창의 일부는 매우 매력적이고 훌륭한 시도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파리에서의 초연과 달리 유럽 여러 도시에서 공연이 지속될수록 이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카르멘>은 19세기 후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오페라 레퍼토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비운의 작곡가 비제가 1875년 6월 3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이 오페라가 거둔 대성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다.

C A R M E N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혁명적’ 성격

앞서 언급했던 니체는 자신의 미학관에 대한 첫 번째 명제로, 다음의 문장을 꼽았다. “선한 것은 가볍고, 신적인 모든 것은 물결처럼 부드럽게 흘러간다.” 그러면서 바그너와 비제의 음악을 비교하는데, 바그너의 관현악 음색이 난폭하고 인위적인 반면, 비제의 음색은 가볍고 탄력 있으며 정중하게 다가온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비제의 음악은 풍부하지만 간결하고, 세련되었지만 대중에게 친근하다는 것이다. 물론 바그너를 비난하기 위해 비제를 언급한 니체의 의도가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의 음악, 특히 유일한 성공작인 오페라 <카르멘>의 진가를 꿰뚫어 보았다는 점은 유의미해 보인다.

파리 근교에서 성악 교사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비제는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며, 10세 때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 음악공부를 이어나갔다. 10대 후반에 이미 로마대상을 받아 3년 가까이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다 파리로 돌아와서는 오페라 창작에만 주력했으나,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는데 실패했다. 단막 오페레타 몇 편, <이반 4세>(Ivan IV, 1862-65), <진주조개잡이>(Les pêcheurs de perles, 1863), <퍼스의 아가씨>(La jolie fille de Perth, 1866) 등.

비제에게 첫 성공을 가져다 준 오페라 <카르멘>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작품이다. 초기 비평이 말해주듯, 내용의 “부도덕성”은 지금까지의 오페라와는 완전히 배치되었다. 카르멘이라는 여인은 여러 남성을 유혹하여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팜므파탈’로, 지고지순하고 희생을 마다 않는 보통의 오페라 여주인공과는 완전히 달라 청중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평범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베리시모(Verismo) 오페라의 선구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는 말하는 듯 노래하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레치타티보 대신 대사로 처리되는 오페라 코미크(Opéra Comique)에 해당하나, 차후에 대사를 레치타티보로 수정하여 그랑 오페라(Grand Opéra)로 분류된다.

사랑과 구원, 희생이라는 이상적 가치에 기반한 기존 오페라와 달리, <카르멘>은 치정과 애욕, 미움과 저주가 결국 죽음으로 치달는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도덕이나 경박함이 아니라,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과 집착이 뒤섞인 현실적인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사랑은 위험하고 길들일 수 없는 힘으로 그려지며,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에서는 법을 거스르고 파멸을 불러오는 “반항적인 새”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카르멘>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공감대를 획득한다.

여기에 ‘하바네라’, ‘세기디야’, ‘투우사의 노래’처럼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선율과 즉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음악적 매력은 <카르멘>을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널리 공연되는 오페라로 자리매김하게 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곱씹으며, KBS교향악단과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협업으로 완성될 <카르멘>의 음악 그 자체에 귀 기울여 볼 시간이다.

글 | 강지영(음악학자)

대본

번역 | 김나희

제 1 막

세비아의 한 광장. 오른쪽에는 담배 공장 문이 있다. 뒤쪽에는 실제 다리가 있다. 왼쪽으로는 초소가 있다. 막이 오를 때, 모랄레스 상사와 병사들이 경비 초소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광장을 스쳐 지나간다.

인트로

병사들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네, 이리저리로. 우스운 사람들이로구나!

모랄레스
위병소 문 앞에서, 시간 죽일 겸 담배를 피고, 잠담하고, 행인들을 구경하네. 모두가 광장을 지나가네. 누군가는 오고 저 사람은 가고

병사들
광장을 모두가 지나가네, 누군가는 오고 저 사람은 가고 불만한 사람들이로구나!

모랄레스와 병사들
불만한 사람들이로구나!
(미카엘라 등장)

모랄레스
저 젊은 아가씨를 봐. 우리에게 말걸고 싶은 듯, 저 봐, 돌아서서 머뭇거리네.

병사들
가자. 우리가 가서 도와야지!

모랄레스
예쁜 아가씨, 뭘 찾고 있죠?

미카엘라
하사관을 찾고 있어요.

모랄레스
내가 바로 하사관이예요!

미카엘라
아, 제가 찾는 하사관은 돈 호세예요. 혹시 그를 아시나요?

모랄레스
돈 호세? 우리 모두 그를 알죠.

미카엘라
정말요? 그가 당신들과 함께 있나요?

모랄레스
그는 우리 중대 소속은 아니죠.

미카엘라
그럼 여기 없나요?

모랄레스
그래요, 어여쁜 아가씨. 하지만 그는 곧 올 거예요. 보초들이 교대하러 올 때 같이 올거예요.

모랄레스와 병사들
그는 보초들이 교대하러 올 때 같이 올 거예요.

모랄레스
그를 기다릴 동안, 예쁜 아가씨 관찰하시면 이쪽으로 와서 잠깐 우리 중대와 함께 있지 않겠나요?

미카엘라
당신 중대와요?

모랄레스, 병사들
우리 중대에 말이예요.

미카엘라
아뇨, 관찰아요 정말 감사해요, 병사 여러분.

모랄레스
검역치 말고 이리 와요, 아가씨.

약속컨대 귀한 사람인 당신에게 모든 예의를 다 갖추겠어요

미카엘라
그런 의심은 안 하지만 좀 이따가 돌아오는 것이 더 현명할거예요. 보초들이 교대할 때 다시 올게요.

모랄레스, 병사들
기다려요, 새 보초들이 이내 올 거예요
(미카엘라를 붙잡는다)
더 머물러요!

미카엘라
(벗어나려고 애쓰며)
아뇨! 안 돼요!

병사들
더 머물러요! 우리와 함께! 기다려요! 기다려봐요!

미카엘라
아뇨, 안 돼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도망쳐 나와 달아난다)

모랄레스
새는 날아갔으니, 소일거리를 찾아야겠군! 시간을 때우려면 다시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이나 구경하자.!

병사들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네, 이리저리로. 우스운 사람들이로구나!

행진, 거리 소년들의 합창

멀리서 군악 행진곡이 들려오고 무대 위에서 나팔 소리가 울린다. 병사들이 초소 앞에 줄지어 선다. 교대 병력이 나타난다. 먼저 나팔수와 피리수, 그 뒤를 이어 거리의 소년무리가 따라온다. 그 뒤를 이어 주

니가 중위와 돈 호세 하사관, 기병대가 등장한다. 거리의 소년 합창이 이어지면서 교대 병력은 퇴근하는 초소 병력 앞에 정렬한다.

소년들의 합창

새 보초들과 함께 우리가 도착한다 큰 나팔을 불어라. 타라-타-타. 타라-타-타! 고개를 높이 들고, 작은 병사들처럼, 박자를 맞춰서 행진하자. 하나, 둘, 실수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팔을 이렇게 똑바로 흔들면서 새 보초들과 함께 우리가 도착한다 큰 나팔을 불어라. 타라-타-타, 타라-타-타!

담배 공장 아가씨들의 합창

공장 종이 울린다. 돈 호세는 쇠사슬을 코 밑에 걸친 채 앉아, 변해가는 풍경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젊은 남자들
종이 울리네 우리는 여공들이 나오는 걸 보러 왔지. 다갈색 머리의 담배공장 아가씨 당신을 따라가 사랑의 말을 속삭여볼까.

병사들
저 여자들 좀 봐. 당돌한 눈빛에 교태 부리는 표정 모두들 이 사이에 담배 한 대씩 물고 피우네.

담배공장 아가씨들
공중의 연기를 우리의 눈이 좇아가네 향기롭게 하늘로 솟아올라 휘훨 나는 연기를. 연기는 감기롭게 머리 위로 오르고 당신에게 내려 앉아 부드럽게 기쁨으로 차오른 영혼 그들의 환희와 맹세도 연기와 같지.

젊은 남자들
그렇게 단호하게 굴지 말아요. 우리 말을 들어봐요, 예쁜이들. 우리가 좋아하고 숭배하는 당신들이라고.

담배공장 아가씨들
연인 사이 달콤한 말은 연기에 불과해. 그들의 열정과 맹세도 연기와 같지. 공중에 우리의 눈길이 좇아가 연기를 쳐다보네.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좇네

병사들
그런데 카르멘시타는 보이질 않는데!
(카르멘 등장)

모두
저기 그녀네! 그녀가 온다! 카르멘시타가 온다!

젊은 남자들
(카르멘을 둘러싸며)
카르멘, 우리 모두 당신 앞에 모였어요. 제발 친절히 작은 대답이라도 해줘요. 그리고 언제쯤 우리를 사랑해 줄지 말해줘요!

카르멘
언제 당신들을 사랑해 주냐고요? 나도 그건 몰라요! 아마도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거나 혹은 내일이라도 당장 사랑에 빠질지도요.
(돈 호세 등장)
그러나 확실한 건 오늘은 아니예요

하바네라

카르멘 (합창과 함께)
사랑은 들판에 사는 새,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요. 거절하기로 마음 먹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협박을 해도, 회유를 해도 소용 없어요. 달변가와 과묵한 사람 중 과묵한 사람이 좋아요. 말 한마디 없어도 내 마음이 풀리죠 사랑... 사랑... 사랑은 어린 집시아이 처럼 멋대로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말할 때, 조심해요! 당신이 잡았다고 생각한 새는 날개를 펼쳐 훨훨 날아가 버릴 테니까요. 사랑이 멀리 있다면, 당신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테니까요. 당신 주변 어디서나 갑자기, 사랑이 왔다고 또 찾아올 거예요. 당신이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이고 벗어날려 하면 당신을 꼭 붙들 거예요. 사랑... 사랑...

정경

젊은이들
카르멘, 우리 모두 당신을 따라 모였어요! 카르멘, 부탁이니 대답이라도 해 줘요.

담배공장 아가씨들
사랑은 집시 어린아이처럼. 제멋대로죠. 당신이 싫다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심해요.
(공장의 종이 울리자 모두 달려간다. 돈 호세가 그의 발 아래 땅에 떨어져 있는 꽃을 응시한다.)

이중창

돈 호세
어머니에 대해 말해 줘요!

미카엘라
당신 어머니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돈 호세
편지!

미카엘라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당신 용돈, 그리고...

돈 호세
그리고?

미카엘라
그리고...엄두가 안 나는데...그리고 다른 것도요. 돈보다 값지고 당신이 더 귀하게 여길 다른 것도요.

돈 호세
다른 거라니, 그게 뭐죠? 어서 말해 줘요.

미카엘라
네, 말할게요. 제가 받은 것을 당신에게 전할게요. 당신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성당을 나오면서 제게 키스하며 말씀하시길: “그 도시로 가거라. 길이 멀지 않다. 세비아에 도착해서 내 아들을 찾아보거라. 나의 호세, 내 아들을.

그리고 그에게 말해주거라.
이 어머니가 아들이 없는 동안
밤낮으로 아들 꿈을 꾸고 있다고.
정말 그리워하고 소망하며
모두 응서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아가, 이 모든 것을 호세에게 전해 주겠니?
그리고 그에게 전하렴.
내가 너에게 해 주는 이 카스도
내가 그에게 보내는 것이니 전하렴.”

돈 호세
(깊이 감동받은 채)
어머니로부터의 입맞춤이라니!

미카엘라
아들을 위한 입맞춤,
호세. 약속대로 당신에게 전하겠어요.
(호세에게 입맞춤다.)

돈 호세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보이는구나...
그래, 내 고향도 다시 보이고
오, 옛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내 심장을 채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구나.
오! 소중한 추억들!
어머니가 보이고
내 고향이 다시 보인다!

미카엘라
그가 어머니를 다시 보는구나!
고향도 다시 보고!
오, 옛 추억들,
고향의 추억들이여!
그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구나.
오, 소중한 추억들!
그가 어머니를 다시 뵈고
마을을 다시 보는구나!

돈 호세
(그 자신에게)
내가 막 어떤 악마의 제물이 되려 했는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멀리 계셔도
어머니는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보내주신 이 입맞춤이 위험을 막아주고 아
들을 지켜줄 거야.

미카엘라
악마라뇨? 위험이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돈 호세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건가요?

미카엘라
네, 바로 오늘 저녁에요.
내일은 당신 어머니를 뵈게 되겠지요.

돈 호세
어머니를 뵈는군요!
그럼 어머님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이제는 뉘우치고 있다고
또 멀리 계신 어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고자 한다고도요.
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말씀드려 줄래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 입맞춤도 전해 줘요.

미카엘라
네, 약속해요. 아들 호세로부터
약속한대로 그분께 이 입맞춤을 전할게요.

돈 호세
당신이 어머니를 뵈는군!.....

미카엘라
그가 어머니를 다시 뵈는구나!

합창

주니가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소프라노 첫번째 그룹
도와줘요! 안 들리나요?

소프라노 두번째 그룹
도와줘요, 우릴 도와줘요, 병사님들!

소프라노 첫번째 그룹
카르멘시타예요!

소프라노 두번째 그룹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결코 아니에요.

소프라노 첫번째 그룹
아니, 맞아요.
그녀가 먼저 때렸어요.

소프라노 두번째 그룹
그들 말을 듣지 말아요,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소프라노 첫 번째 그룹
그들 말을 듣지 말아요,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소프라노 전체
그들 말을 듣지 말아요.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소프라노 두번째 그룹
(주니가를 그들 쪽으로 이끌면서)
마누엘리타가
여러 번 목소리 높여
말했더랬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당나귀를 꼭 사겠다고.

첫번째 그룹
(똑같이 말하면서 주니가를 그들 편으로 이끈다.)
그러자 카르멘시타가
평소처럼 조용하듯 말했어요.
당나귀, 그걸로 뭐하려고?
너는 빗자루면 충분할텐데

두번째 그룹
마누엘리타가 몸을 돌려
그녀에게 말했어요.
특별한 산책에는
내 당나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첫번째 그룹
그리고 그날 너는
자랑스러운 숙녀인 척 해도 될 걸.
두 하인이 뒤따르면서
열심히 네 주변 파리를 쫓아줄 테니까.”

모든 소프라노들
그리고는 돌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았지요.

주니가
(웃으면서)
빌어먹을! 시끄러우니 조용하시오!
호세, 두 사람을 데려가
이 소동의 원인을 알아오게!
*(돈 호세가 두 사람을 데리고
공장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그룹
카르멘시타예요!

소프라노 두번째 그룹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결코 아니에요.

소프라노 첫번째 그룹
아니, 맞아요.
그녀가 먼저 때렸어요.

주니가
(병사들에게)
여기요! 이 여자들 다 치워 주시오!

모든 여자들
장교님, 장교님!

병사들
(여자들을 밀어내며)
모두 조용히 하시오!
저리 가요! 다들 조용히 해요!

모든 여자들
장교님!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장교님!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장교님! 장교님!
먼저 주먹을 날린 건
카르멘시타였어요!!
그건 마누엘리타야!
그녀가 먼저 편지를 날렸어!
라 카르멘시타!
라 마누엘리타!
개가 맞아요!
아니에요!
먼저 때린 건!
카르멘시타예요! 카르멘시타!
마누엘리타예요! 마누엘리타!

카르멘
트라, 라, 라, 라
나를 처형하고 불태워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불도 칼도 하늘조차도!

주니가
내가 요구한건 노래가 아니라 대답이야

카르멘
트라, 라, 라.
내 비밀을 지킬거예요. 아주 철저히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이를 사랑한다 말하며 죽겠어요!

주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감옥 벽에다가
노래를 부르게 될 거요.

소프라노 1&2
감옥이다! 감옥!

주니가
이런! 손을 함부로 놀리는군!

카르멘
트라, 라, 라, 라, 라, 라, 라-

주니가
안타깝군, 정말 유감이야
이렇게나 예쁜데 말이지
그래도 어쩔수 없군
예쁜 두 팔을 묶어

세기디아와 이중창

카르멘
*(의미심장하게 돈 호세에게 자꾸 눈을 맞추자
그가 점점 그녀에게 이끌린다.)*
세비아의 성벽 부근,
내 친구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에서
세기디아를 춤추고,
만자니아를 마실래요.

그래요, 혼자서는 지루해요.
진정한 즐거움은 둘이서 함께 하는 법
그래서 일행으로 삼기 위해
연인과 함께 가겠어요.
내 애인! 그는 사라졌어요.
난 어제 그를 차버렸는데
내 가련한 마음은 쉽게 위로받으니
난 공기처럼 자유로워요.
한 다스의 구혼자가 내 앞에 줄섰지만
내 눈에 안 찼어요.
이제 주말인데 누가 날 원하나요?
나도 그를 사랑하겠어요.

누가 내 영혼을 원하나요? 어서 가져가요!
당신은 알맞은 때 오셨군요.
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새로운 연인과
세비아 성벽 부근
내 친구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에서
세기디아를 춤추고
만자니아를 마셔야 하니까요.

돈 호세
조용히 해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소.

카르멘
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 혼자 노래하고, 생각할 뿐
생각이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난 어떤 장교를 떠올려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장교예요.
그리고 나로서는,
나 또한 그를 무척 사랑하게 될지도요.

돈 호세
(흥분해서)
카르멘!

카르멘
내 마음 속 장교는 대장은 아니에요.

중위도 아니고요. 그는 단지 하사관일 뿐.
집시예겐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그와 잘 지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돈 호세
카르멘, 난 취한 사람 같군.
내가 동의한다면, 내가 놓아준다면,
당신 약속대로
아, 카르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해 주겠소?

카르멘
그래요 우린 세기디아를 춤출 거예요.

돈 호세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에서...

카르멘
그리고 만자니아를 마시고, 아!

돈 호세
그걸 약속해요, 카르멘!

카르멘
세비아의 성벽 부근,
내 친구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에서,
우린 세기디아를 춤추고
만자니아를 마실 거예요.
트라, 라, 라, 라, 라, 라!

피날레

(주니가가 들어온다)

주니가
여기 영장이 있다. 떠나라, 그녀를 잘 호송하도록.

카르멘
(돈 호세 곁에서)
중도에 당신을 힘껏 밀겠어요...
그럼 넘어지세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카르멘
(카르멘은 쿵노래를 부르며 주니가를 비웃는다.)
사랑은 집시 어린아이,
제멋대로죠.
당신이 아니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뻔 조심해요!
*(그녀는 돈 호세와 병사들과 함께 씩씩하게 걸으며
떠난다. 다리에 도착하자 카르멘은 병사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웃으며 도망친다.)*

제 2막

릴라스 파스티아의 선술집.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 카르멘, 주니가, 안드레스와 다른 장교들, 집시 여자 몇 명이 춤추고 있다.

집시의 노래

카르멘

시스트럼봉이
평한 쇠소리로 째랑거리고

이 기묘한 음악에
집시 아가씨들이 뛰어오르네.

격양된 기타는
끊임없이 같은 노래,
같은 후렴을 연주하네.
트라, 라, 라, 라,
(메르세데스와 프라스키타가 카르멘을 따라 되풀이한다. 라, 라, 라)
구리 반지, 은반지가
가무잡잡한 피부 위에 번쩍거리고
오렌지 색과 빨간색 줄무늬천이
미풍에 펄럭이네.
춤 노래와 더불어지니
처음은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점차 활기 띄고 빨라지며
갈수록 격렬해지네.
트랄, 랄라, 라라, 라.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

트랄, 랄라, 라라, 라...

카르멘

집시들이 정열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니
매혹적 음향이
집시 여인들을 사로잡네.
격렬하고 야성적이고 열정적인 노래가락에
도취하여 그녀들은
소용돌이 춤을 추는구나.
트랄, 랄라, 라, 라...

세 사람 모두

트랄, 랄라, 라, 라...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와 카르멘이 춤추는데 끼여든다)

합창, 앙상블

합창

만세, 투우사 만세!
만세, 에스카미요 만세!

만세! 만세!

주니가

햇볕행진이로군!
그러나다 투우의 우승자,
축배를 함께 하겠습니까? 친구여!
과거의 성공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합창

만세, 투우사 만세!
만세, 에스카미요 만세!
만세, 투우사 만세!
만세, 에스카미요 만세!

Couplet

에스카미요

여러분, 축배를 들시다.
병사들과 투우사는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요.
그들은 전투 속에서 기쁨을 느끼죠.
투우장이 가득 차면, 그날은 축제!
위아래 장내가 팍 차면
관객들은 평정심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도전과 고향과 소란이
절정에 달하지요.
투우는 용맹함의 축전이며
용기의 제전이니깐요,
그럼 가자! 준비하라!
야! 투우사, 조심해!
그리고 기억해요.
당신이 싸울 때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가
사랑을 가득 담아 바라보는 것을...
투우사여, 사랑이 당신을 기다려요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모두

투우사, 조심해요! 투우사!
투우사! 기억해요. 그래요,
투우사! 당신이 싸울 때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가
사랑을 가득 담아 바라보는 것을...
투우사여, 사랑, 사랑이 당신을 기다려요
그래요. 사랑이 당신을 기다려요

에스카미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네.
무슨 일이지? 더 이상 고향소리도 없어
바로 이 순간, 싸움소가 울타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앞으로 돌진하는 싸움소가
번개같이 뛰어들어 들어받는구나.
말이 넘어지고 피카도르가 질질 끌려간다.
“싸움소 만세!” 관중들이 고향친다.

싸움소가 간다... 그가 온다...

그가 와서 다시 공격한다!
분노로 가득 찬 반데릴라를 흔들며
그는 달리고, 경기장 장내는 피로 가득하네!
사람들은 도망치고 철창을 넘는다!...
이제 당신 차례!
어서! 조심해!
어서! 한번 더! 야!

전체

투우사, 조심해요!
투우사! 투우사!
기억해요. 그래요, 당신이 싸울 때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가
사랑을 가득 담아 바라보는 것을...
그저 사랑, 사랑이 당신을 기다려요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투우사여, 조심해요!
투우사! 투우사!
그리고 잘 기억해요, 그래, 기억해요. 싸울 때
검은 눈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 사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전체 출연진

사랑!
투우사! 투우사!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5중창

단카이로

우리 사업을 구상 중이죠

프라스키타

관찰은 사업인가요? 말해 봐요.

메르세데스

할만한 사업인가요? 말해 봐요.

단카이로

아주 근사한 사업이지, 예쁜이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해요.

레멘다도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해요.

세 여자들

저희를?

두 남자들

당신들이 필요해요,
네, 저희가 필요하세요?
저희가 필요하다고요? 뭐라고요!
당신들! 당신들

그래, 우리는 당신들이 있어야 해요!
겸허히 아주 솔직하게 존중을 담아
털어놓는다면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협잡이나 사기, 도둑질할 때는
말하자면 언제나 여자들과
함께 하는 게 낫지요.

레멘다도

여자들이 없으면,
잘 된 적이 없었거든.

세 여자들

뭐라고요? 우리들이 없으면
잘된 적이 없었다고요?

두 남자들

못 믿겠어요?

세 여자들

물론 믿어요.

두 남자들

정말로, 못 믿겠어요?

다섯 사람 모두

협잡이나,
사기 도둑질할 때는
말하자면
언제나 여자들과
같이 있는 게 낫지요.
여자들이 없으면,
예쁜이들,
잘된 적이 없었거든.
내 말 믿으세요.
같은 편인 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카이로

그럼 결정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단카이로

그럼, 지금 당장 떠납시다

카르멘

아, 잠깐만.
(메르세데스와 프라스키타에게)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
그러나 난 지금 여행은 못 떠나겠어.
나는 안 갈거야. 나는 못 가.

두 남자들

카르멘, 같이 갑시다.
당신은 매몰차게 우리가 곤란해지도록

내버려 두진 못할 거잖아요.

카르멘

나는 안 갈거야, 못 가!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

아, 카르멘. 같이 가자.

카르멘

나는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단카이로

그럼 최소한 이유라도 얘기해 줄래요?

네 사람

이유를!

카르멘

확실히 말할게요.

네 사람

그래, 한번 들어 봅시다

카르멘

이유는 이제 막...

네 사람

그래서?

카르멘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두 남자들

그녀가 뭐라고 한 거지?

두 여자들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두 남자들

사랑에 빠졌다고?

두 여자들

사랑에 빠졌다고?

카르멘

그래요, 사랑에 빠졌어요!

단카이로

자, 카르멘. 진지하게 이야기 해봐요.

카르멘

내 자신을 잃을 만큼 진한 사랑에 빠졌어요.

두 남자들

이건, 확실히 놀랄 만한 이야기군요

그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당신은 의무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알고 있을텐데요.

카르멘

나의 친구분들, 난 당신들과
이 밤에 떠난다는 걸 아주 마음에 들어했었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너그럽게 용서해 줘요.
의무보다 사랑이 앞셔야겠어요.
오늘 저녁은 의무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단카이로

그걸로 할 말이 끝은 아니겠죠?

카르멘

할 말은 끝났어요

레멘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사람 모두

가야 해요. 카르멘, 가야 해요.
우리 사업과 우리 관계를 위해 필요하니까요.

두 여자들

우리 사이를 위해...

카르멘

그렇게 말한다면 받아들이죠. 당신들과 함께...

이중창

카르멘

당신을 위하여 춤을 춰 드리겠어요. 날 봐요,
내가 어떻게 춤을 이끌어내는지.
거기 앉아요, 돈 호세. 시작하겠어요.
라, 라, 라, 라.

(그녀가 춤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캐스터네츠로 반주를 한다. 돈 호세가 황홀하게 쳐다본다. 아득히 멀리서 귀대 나팔 소리가 들린다. 돈 호세가 카르멘의 팔을 잡아당겨 멈추게 한다.)

돈 호세

잠깐만, 카르멘. 잠시만 멈춰요.
(그녀를 멈추게 한다.)

카르멘

왜요, 즐겁지 않나요?

돈 호세

내 생각엔 저기서...
그래, 귀대를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들리지 않나요?

카르멘
 아주 좋아요! 아무리 애를써도
 악단의 반주 없이 춤추는 건 슬픈 일이지
 그러니 하늘에서 보낸 음악 만세!
 라, 라, 라, 라, 라, 라...
(나팔소리가 여관 앞을 지나 멀어진다. 돈 호세가 카르멘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다.)

돈 호세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군.
 카르멘, 이젠 귀대 나팔이고
 난 점호를 받기 위해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카르멘
 아무 말도 듣지 않겠어요.

돈 호세
 들어봐요!

카르멘
 그들이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돈 호세
 들어봐요, 카르멘. 들어봐요!

아니,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기 멀리까지도 날 따라오겠조

돈 호세
 카르멘!

카르멘
 나를 따라 함께 가요.
 날 당신 말에 태워주세요.
 용감하게 당신 뒤에 태우고
 멀리 산 속으로 데려가줘요.

카르멘
 부대로요? 점호를 받기 위해?
 아, 난 너무 바보같았군요.
 내가 신사분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곤경과 고통을 겪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오, 신이여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를 사랑했으니.
 타라타타! 귀대 나팔이라!
 타라라라... 그가 떠나가네! 가는 구나!
 그럼 날아가라, 카나리아야.
(화내며 군모를 그에게 집어던진다)
 여기 있어요. 당신의 군모, 탄대를 가져가요.
 부대로 달려가요.

카르멘
 그들이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안돼요, 안 돼, 안 돼...

돈 호세
 들어봐요...

카르멘
 안돼요, 안 돼, 안 돼...

돈 호세
 카르멘,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당신이 나에게 던져준 그 꽃을
 감옥에서도 간직했어요.
 마르고 시들었지만
 이 꽃은 달콤한 향기를 계속 풍겼죠.
 몇 시간이 지나도록 눈감으며
 그 향기를 맡으며 시간 가는줄 몰랐고
 밤이면 당신을 떠올렸죠.
 난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왜 운명이 나를 당신과 만나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러자 당신을 욕한 것이 후회되었고
 당신을 한번만 더 다시 보고 싶다는
 오직 한 가지 소망, 오직 하나의 희망만이
 솟구쳤소.
 그래, 당신과의 재회!
 당신은 그저 나타나서는 내게 시선
 한번 던진 것만으로 나의 온 존재를
 사로잡았으니깐요
 오, 나의 카르멘.
 나의 전부가 당신 것이예요.
 카르멘, 당신을 사랑해요.

돈 호세
 카르멘!

카르멘
 함께 가요, 나를 따라와줘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요
 명령에 복종해야 할 장교도 없고
 연인에게 헤어질 시간을 알리는
 귀대 나팔 소리도 없어요.
 넓은 하늘이 펼쳐지고, 방랑하는 삶
 드넓은 세상,
 당신 의지대로 이끄는 삶, 무엇보다
 자유의 도취감, 자유!

돈 호세
 맙소사!

카르멘
 저 멀리 산 속으로

돈 호세
 카르멘!

카르멘
 함께 떠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돈 호세
 그만해요

돈 호세
 날 조롱하지 말아요. 카르멘,
 나도 떠나는 게 가슴 아파요. 당신 이전
 어떤 여자도 결코 이렇게 깊이
 나를 영혼의 바닥까지 뒤흔든 적이 없었어요!

카르멘
 떠나는 게 가슴 아프다고!
 나 이전 어떤 여자도 결코 이렇게 깊이
 영혼의 바닥까지 뒤흔든 적이 없다니!
 타라타타!
 맙소사,
 귀대라니.
 이려다 늦겠어!
 그는 정신없이 달려가네.
 그의 사랑도.

돈 호세
 그래, 당신은 내 사랑을
 믿지 못한단 말인가요?

카르멘
 전혀요!

돈 호세
 들어봐요!

돈 호세
 그래 좋아, 영원히 안녕!

카르멘
 가버려요! 영원히!

돈 호세
 카르멘!

카르멘
 가버려요! 영원히!

돈 호세
 그래 좋아, 영원히 안녕!

돈 호세
 그래, 당신은 내 사랑을
 믿지 못한단 말인가요?

카르멘
 전혀요!

돈 호세
 들어봐요!

카르멘
 아뇨,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 호세
 그게 무슨 소리죠?

카르멘
 아뇨.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 호세
 아! 카르멘, 그만해요! 신이시여!

카르멘
 날 당신 말에 태워주세요.
 용감하게 저를 당신 말에 태우고
 시골길을 가로질러 가주세요.
 그래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데려갈 거예요.

돈 호세
 아, 아! 카르멘. 자비를!
 오, 신이시여!

카르멘
 네, 멀리, 멀리,
 당신은 저와 함께 떠날 거예요, 그렇지?
 저와 함께 가실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함께 떠날 거예요!
 저 먼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돈 호세
 아, 그만! 그만 말해요!

피날레

주니가
(외부에서)
 이봐요! 카르멘!

돈 호세
 문을 두드리는 게 누구지?

카르멘
 조용히 해요!

단카이로, 레멘다도
(손에 권총을 쥐고)
 우리 장교님, 우린 이 곳을 막 떠나려던 참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시죠

카르멘
 산책이랑 별 차이 없어요.

단카이로, 레멘다도, 집시들
 동의하시나요?
 대답해요, 친구

카르멘
 그 먼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돈 호세
 아니! 더 이상 당신 말을 듣지 않겠어요!
 탈영은 수처스러운 일이며,
 불명예요.
 그럴 수 없어요!

카르멘
 가요, 그럼!

돈 호세
 카르멘, 제발...

주니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겠소.
(돈 호세를 보고)
 아, 거 참, 아름다운 아가씨!
 이젠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데...
 장교가 있는데도 병사를 택하는 것은
 당신답지 않군요.
(돈 호세에게)
 자, 나가게!

돈 호세
 안 됩니다.

주니가
 가라고 말했네! 떠나라고.

주니가
 물론이야
 특히나 당신들 논조는
 거부하기 어렵군...
(억양을 달리해 돈 호세에게)
 하지만 나중을 조심하라고!

단카이로
 전쟁은 전쟁이지!
 그러니 장교님,
 잔말 말고 앞장서서 가시죠!

레멘다도와 합창
 순순히 앞장서서 가 주셔야겠습니다!

카르멘
(돈 호세에게)
 당신 이제 우리와 한 편인가요?

돈 호세
 카르멘, 제발...

카르멘
 아니,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 호세
 내말 좀 들어봐요!

카르멘
 가버려요! 영원히!

돈 호세
 카르멘!

카르멘
 가버려요! 영원히!

돈 호세
 그래 좋아, 영원히 안녕!

돈 호세
 떠나지 않겠습니까.

주니가
(그를 때린다.)
 이 웃기는 놈이!

돈 호세
(칼을 빼든다.)
 빌어먹을! 먼저 싸움을 걸어온거요!

카르멘
(그들 사이에 끼어든다.)
 이 질투에 눈 먼 남자들!
(부른다.)
 도와줘요! 누구든!

돈 호세
 그럴 수밖에, 어쩔수가 없군!

카르멘
 흠, 기꺼이 합류한 건 아니지만
 어쩔든 좋아요.
 방랑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드넓은 세상, 제약없는 삶,
 무엇보다도 자유의 도취감,
 자유가 얼마나 찬란한지 알게 되면
 이 생활방식에도 익숙해 질 거예요.

전체
 우리 함께 들뜬을 걸어가요
 우리 다 같이 산속으로 가요
 당신이 경험할 방랑 생활과 드넓은 세상,
 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
 무엇보다도 자유의 도취감,
 자유가 얼마나 찬란한지 알게 되면
 이 생활에 익숙해 질 거예요.
 자유! 자유!

카르멘
 가버려요!

돈 호세
 카르멘, 완전히 끝내는 거야!

카르멘
 안녕!

카르멘
(주니가에게)
 멋진 장교님, 사랑이 순간
 당신에게 악당의 술책을 부렸군요!
 하필이면 때를 잘못 골라 오셨어요.
 안됐지만 들키지 않도록
 당신을 한두 시간 잡아 뒀겠어요.

카르멘
 아뇨.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3막

아름답고 황량한 바위투성이 고장이다. 아주 쓸쓸하고 어두운 밤이다. 한 밀수꾼이 바위 위에 나타나서 신호를 보낸다.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이 바위를 내려온다. 남자들은 큰 짐짝을 메고 있다.

밀수꾼들
들어라, 친구여. 들어라.
재물이 저 아래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나 가는 길을 조심하라.
잘못 걸음을 딛지 않도록.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카르멘, 돈 호세, 단카이로와 레멘다도가 들어온다.)

6중창
우리 직업은 좋은 것.
그러나 배짱이 필요하지.
사방 어디든지 위험이 도사리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린 전진하네. 급류를 헤치고
폭풍우를 무릅쓰고
저 밑에서 우릴 기다리고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는 병사들도 무시하고
대담하게 전진하네.

모두
친구여, 들어라
큰 재물이 저 아래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나 가는 길을 조심하라.
잘못 걸음을 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3중창

(프라스키타와 메르세데스가 카드판을 벌이고 있다.)

프라스키타
카드를 섞어라!

메르세데스
카드를 섞자!

프라스키타
나누자!

메르세데스
나누자!

프라스키타
이제 됐어! 그거야!

메르세데스
거기 놔, 이제 됐어!

프라스키타
여기 카드 세 장!

메르세데스
여기 카드 세 장!

프라스키타
네 장은 저기에!

메르세데스
네 장은 저기에!!

두 사람
이제 말해 주렴, 귀염둥이들.
미래를, 우리에게 이야기 해줘.
누가 우리를 배신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할지 말해줘,
이야기 해줘!

프라스키타
난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젊은 애인이 보여.

메르세데스
내 애인은 아주 돈이 많고 늙었어.
그러나 결혼을 말하네.

프라스키타
그의 말에
나를 태우고 산으로 데려가네.

메르세데스
내 애인은 왕궁 같은 성에서
나를 여왕으로 받드네.

프라스키타
끝없는 사랑,
매일매일 새로운 열정.

메르세데스
내가 가질 수많은 금과
다이아몬드... 보석들...

프라스키타
내 애인은 유명한 수장이 되었네.
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렸어.

메르세데스
내 애인은 내 눈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
죽었어. 아, 난 미망인으로 재산을 상속받네.

두 사람
말해봐, 귀여운 것들.
미래의 일을 알려줘.
누가 우리를 배반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할지 말해줘,
(그들은 다시 카드를 살펴본다.)

메르세데스
재산!

프라스키타
사랑!

카르멘
카드를 이리 줘. 내가 이제 해 보지.
(카드를 넘기기 시작한다.)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죽음!
내가 제대로 읽었어... 내가 먼저
다음은 그이.. 우리 둘 다 죽음이지!
쓰라린 해답을 피하려는 건 부질없는 짓.
카드를 다시 섞어도 소용없어.
도움이 안 돼. 카드는
진실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천상 명부 당신 페이지에
행운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것 없이
카드를 섞고 나눠라.
당신의 카드는 즐거이
당신의 행운을 보여줄 테니.
그러나 당신이 죽어야 한다면
운명이 그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면
스무 번을 다시 해도
그 무정한 카드는 반복하리! 죽음이라고!
(카드를 뒤집는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항상 죽음!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다시 말해보렴, 귀여운 것들.
미래의 일을 알려줘.
누가 우리를 배반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할지 말해줘.

카르멘
또 다시! 절망이다!
죽음, 죽음! 다시! 죽음!

프라스키타
사랑!

메르세데스
재산!

카르멘
언제나 죽음이다!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또 다시!

카르멘
죽음이야! 또 다시!

합주곡
카르멘,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 여자들
세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겨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쾌락을 즐기고
멋장이같이 놀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먼저 갈게요.

모두
그들은 쾌락을 즐겨요.

프라스키타
세관관리들은 친절할 거요.

모두
그는 멋쟁이지요.

카르멘
세관관리들은 멋있을 거예요.

모두
그는 쾌락을 즐겨요.

메르세데스
세관관리인들은 멋쟁이일 거예요.

프라스키타
그래요, 세관 관리들은 용감하기까지 할 거예요!

모두
그래요, 세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겨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쾌락을 즐기고
멋쟁이처럼 놀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먼저 갈게요.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카르멘
싸울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래요, 단지 끌어안기고
찬사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죠.
웃음까지 팔아야 한다면
그럼 무얼 할까요?
웃으면서 미리 말하지요.
밀수품이 통과할 거라고.

여인들
밀수품이 통과할 거라고.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카르멘
앞으로! 걸음시다! 가자고요! 출발, 앞으로!

모두
세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겨요.

아리아
미카엘라
난 무서울 게 없다고 나에게 타일러야 해.
아, 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다짐해야 해.
그러나 대담하게 행동하려고 애써도
마음 속으로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이 황량한 곳에 홀로 있으니,
나 혼자 있으니 무서워.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를 타락시킨 저 여자를
가까이서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지만 아름답지
그러나 난 두렵지 않아.
난 그녀 앞에서 소리 높여 말할거야
저를 보호해 주소서.
오 주여! 주여, 은총을 베푸소서, 아!

2중창

에스카미오
전 에스카미오, 그라나다의 투우사요.

돈 호세
에스카미오!

에스카미오
그래요.

돈 호세
당신 이름을 들은 적 있지,
환영하오. 그러나 친구,
당신은 조금 전 죽을 뻔 했어.

에스카미오
부정하지 않겠소.
하지만 내가 미치도록 사랑에 빠져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걸
감수하는 가여운 애인이 되었죠.

돈 호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소?

에스카미오
바로 그렇지 친구여.
그녀는 집시지요,

돈 호세
그녀의 이름은?

에스카미오
카르멘

돈 호세
카르멘이라고!

에스카미오
카르멘! 그렇지, 친구.

그녀는 한 때 그녀를 위해 탈영까지 한 군인을
애인으로 두었었소.

돈 호세
(그 자신에게)

카르멘이라고!

에스카미오
그들이 사랑했지만 이제 끝났다고 믿어요.
카르멘은 6개월 이상은 사랑하지 않거든.

돈 호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고...

에스카미오
사랑하오. 그렇지, 친구.
미친 듯이 사랑하지!

돈 호세
그러나 우리로부터 집시 여인을 데려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아시요?

에스카미오
줄소. 지불하지.

돈 호세
대가는 칼싸움이오.

에스카미오
칼싸움이라고?

돈 호세
알겠소?

에스카미오
당신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군요.
그 탈영자, 그녀가 사랑하는 아니면 적어도
사랑했던 그 미남 병사, 아마 당신이군요?

돈 호세
그렇소, 바로 나오.

에스카미오
반가운 소리군요, 친구. 모든 게 들어맞아.
(그들은 조금 떨어져서 위치를 잡는다.)

돈 호세
마침내 분노를 터뜨릴 표적을 찾았어.
피가, 그래, 피가 흘러내리겠지!
방어자세를 갖추고 조심해!

<p>몸을 늦게 비키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테니!</p> <p>에스카미오 정말 웃기는군. 애인을 찾으려다 그녀의 애인과 맞닥뜨리다니 방어자세를 갖추고 조심해! 몸을 늦게 비키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테니! <i>(그들이 싸운다. 투우사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돈 호세가 막 짜르려 한다.)</i></p> <p>피날레</p> <p>카르멘 안 돼요, 호세!</p> <p>에스카미오 <i>(일어난다.)</i> 정말로 내 목숨을 구한 것이 카르멘, 당신이라는 사실이 기뻐요.</p> <p>카르멘 에스카미오!</p> <p>에스카미오 <i>(돈 호세에게)</i> 미남 병사여, 당신과 난 비긴거요. 이 미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당신 좋을 때 다시 결투를 합니다.</p> <p>단카이로 맞아요, 더 이상 다투지 말아요. 우리 지금 떠나야 하니까. <i>(투우사에게)</i> 친구, 잘 가시오.</p> <p>에스카미오 적어도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세비아에서 열릴 투우에 당신들을 모두 초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p> <p><i>(검주는 몸짓을 돈 호세에게)</i> 진정해요, 친구. 내 할 말은 끝났고 이제 작별인사만 남았으니.</p> <p><i>(에스카미오가 천천히 나간다. 돈 호세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엘 단카이루와 엘 레멘다도가 붙잡는다.)</i></p> <p>돈 호세 조심해, 카르멘... 난 고통받는 데도 지쳤어...</p> <p>단카이로 출발, 출발이야. 떠나야 해.</p>	<p>모두 출발, 출발이야. 떠나야 해!</p> <p>레멘다도 잠깐! 저기 누가 숨으려 하는데. <i>(미카엘라가 끌려온다.)</i></p> <p>카르멘 여자다!</p> <p>단카이로 참, 놀랍군!</p> <p>돈 호세 미카엘라!</p> <p>미카엘라 돈 호세!</p> <p>돈 호세 불쌍한 당신! 여길 어떻게 온 거죠?</p> <p>미카엘라 당신을 찾아왔어요. 저 아래 오두막에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 하염없이 기도하고 울고 계세요. 울면서 당신을 찾으면서 울면서 당신에게 팔 벌리고 있어요. 부디 어머니를 가엾게 여겨 주세요, 호세. 저와 함께 떠나요.</p> <p>카르멘 가요, 그녀와 함께 가버려! 그게 나야요. 당신은 이런 일에 맞지 않아!</p> <p>돈 호세 나더러 그녀와 함께 떠나라고?</p> <p>카르멘 그래 당신은 떠나야 해!</p> <p>돈 호세 나보고 그녀와 함께 떠나란 말이지. 그래서 당신이 새 애인에게 달려갈 수 있게?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목숨을 잃는다 한들 안 돼, 카르멘. 나는 떠나지 않아.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은 죽을 때까지 우릴 묶어 둘 거야!...</p>	<p>미카엘라 들어봐요, 제발! 어머니께서 당신을 기다려요. 호세, 당신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 내세요.</p> <p>합창 당신은 목숨을 잃을 거요, 호세.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이 당신을 죽음에 빠뜨릴 거요.</p> <p>돈 호세 날 내버려 뒤, 난 저주받은 운명이야!</p> <p>합창 호세, 조심해요!</p> <p>돈 호세 아, 이 악마 같은... 당신은 우릴 묶어놓은 숙명에 따라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할 거야. 비록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절대 떠나지 않겠어!</p> <p>미카엘라 한 마디만 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위독하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는 눈 감으실 수 없대요.</p> <p>돈 호세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p> <p>미카엘라 그래요, 돈 호세.</p> <p>돈 호세 아, 어서가요! <i>(카르멘에게)</i> 당신 만족하겠군. 지금은 가지만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i>(돈 호세, 미카엘라를 이끌고 떠나려다 에스카미오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한다.)</i></p> <p>에스카미오 <i>(멀리서)</i> 투우사여 조심해! 당신이 싸울 때면 아름답고 검은 눈동자가 사랑을 가득 담고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시오.</p>	<p>제 4 막</p> <p>세비아의 투우장</p> <p>합창</p> <p>합창 단돈 두 쿠아르토! 시원한 부채 있어요! 달콤한 오렌지가 두 쿠아르토(화폐단위)! 자세하게 적힌 경기 안내서 있어요 와인! 물! 담배요! 신사 숙녀 여러분!...</p> <p>병사 오렌지 주스, 빨리!</p> <p>행상들 여기 있어요, 드세요, 숙녀님들.</p> <p>오렌지 행상 여인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p> <p>다른 행상들 이게 더 낫습니다.</p> <p>행상들 시원한 부채 있어요!</p> <p>다른 행상들 달콤한 오렌지 있어요!</p> <p>안내서 판매인들 상세한 해설이 담긴 경기 안내서 있습니다!</p> <p>다른 행상들 포도주요!</p> <p>다른 행상들 물 있어요!</p> <p>다른 행상들 담배도 있습니다!</p> <p>안드레스 어이, 부채!</p> <p>한 집시 오페라용 쌍안경도 사시지 않겠습니까?</p> <p>합창 두 쿠아르토! 보세요, 두 쿠아르토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p>	<p>합창, 정경</p> <p>합창 자, 보라구! 쿠아르디아(의상등을 갖춰입고 참여하는 스페인 축제)야! 투우사들이 모였어, 태양 아래 창이 빛나고 허공에는 모자와 솜브레로가 가득해 투우사들이 모인 쿠아르디아야!</p> <p>테너 그럼 환영하자. 그들이 지나갈 때 용감한 주로들을 환영하자. 만세! 만세! 그들의 용기에 영광을!</p> <p>소프라노, 아이들 반데리에로를 보라! 보라, 그들의 멋있는 모습과 눈빛을, 그들 경기복의 장식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가.</p> <p>또다른 쿠아르디아가 다가온다. 피카도르를 좀 봐, 참 잘들 생겼네! 그들은 창끝으로 황소 옆구리를 찌를 거야! 검객이다! 에스카미오다!</p> <p><i>(에스카미오가 나타난다. 바로 옆에 카르멘이 화려한 옷을 입고 행복하게 서 있다.)</i></p> <p>뛰어난 검객 투우사 모든 것을 마무리짓는 자 그는 경기 마지막에 등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만세! 에스카미오 만세! 에스카미오 만세! ** 합창 반복</p> <p>에스카미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카르멘, 곧 내가 자랑스러워질 거예요.</p> <p>카르멘 아! 사랑해, 에스카미오. 사랑해요. 이전에 당신만 큼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면 기꺼이 죽겠어요.</p> <p>카르멘, 에스카미오 그래요 당신을 사랑해요!</p> <p>몇 사람의 목소리 물렀거라! 알칼데 시장님께 길을 비켜 드려라!</p> <p>프라스키타 카르멘, 충고하는데, 여기 있지 마!</p>	<p>카르멘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p> <p>메르세데스 그가 왔어.</p> <p>카르멘 누가?</p> <p>메르세데스 그 사람 말야, 돈 호세. 그가 관중 속에 숨어 있어. 저기 봐!</p> <p>카르멘 그래, 나도 봤어.</p> <p>프라스키타 조심해.</p> <p>카르멘 난 그 앞에서 떠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기다렸다가 그에게 이야기할 거야.</p> <p>메르세데스 카르멘, 내 말 들어. 부디 조심해!</p> <p>카르멘 난 전혀 두렵지 않아.</p> <p>프라스키타 조심해!</p> <p>2중창과 최후의 합창</p> <p>카르멘 당신이군요</p> <p>돈 호세 그래, 나예요.</p> <p>카르멘 난 당신이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오실 거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내 목숨을 걱정하라는 충고까지 들었지만 전 겁쟁이가 아니기에 도망가지 않아요.</p> <p>돈 호세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청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난 과거를 잊기로 했어요. 카르멘, 그래요, 우리 둘이 멀리 떠나요 다른 하늘 아래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p> <p>카르멘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네요.</p>
--	---	--	---	--	--

카르멘은 거짓말 같은 건 안 해요!
내 마음은 변치 않아요!
당신과 나 사이는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이는 끝이에요!

돈 호세
카르멘, 시간이 아직 있잖아요.
오, 나의 카르멘, 내가 숭배하는 당신을,
구하게 해 줘요.
그리고 당신도 나의 구원이 되어 줘요.

카르멘
아뇨.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것을
당신이 날 죽일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든 죽든
절대 당신에게 굴복하는 일은 없어요!

돈 호세
카르멘, 시간이 아직 있어요.
오, 나의 카르멘, 내가 숭배하는 당신을,
구하게 해 줘요.
그리고 당신도 나의 구원이 되어 줘요.

카르멘
왜 다 끝난 사랑에 집착하죠?
“당신을 숭배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나에게선 아무 것도 못 얻을 거예요.
그 무엇도 무의미해요.
내 심장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돈 호세
그럼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죠?

카르멘
그래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돈 호세
그러나 나는. 카르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요.
카르멘, 제발, 난 당신을 숭배해요.

카르멘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의미 없어요!

돈 호세
카르멘, 당신을 사랑하고, 숭배해요.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꼭 그래야 한다면 산적으로
남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지, 뭐든지 할거요.
듣고 있나요? 부디 날 버리지 말아요.
오, 나의 카르멘. 우리 좋았던 날들을 기억해 줘요.
우리 얼마 전까지 서로 사랑했었잖아요.

카르멘
절대 카르멘은 굴종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태어났으니, 자유롭게 살다 죽겠어요.

합창
(투우장에서)
만세! 만세!
멋진 결투다! 피로 얼룩진 모래 위
황소가 달려드네! 다시 날뛰는 소를 향해
정확히 심장을 창으로 찌른다! 황소가 돌진한다.
보아라! 승리다! 만세! 만세! 승리!

*(합창동안 카르멘과 돈 호세 둘 다 잠자코 “승리! 승
리!” 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있다. 돈 호세는 카르멘
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다. 합창이 끝나자, 카르멘
이 투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돈 호세
(그녀앞을 가로막으며)
어딜 가려는 거죠?

카르멘
나를 놔줘요.

돈 호세
그들이 환호하는 남자가
당신의 새 애인이군!

카르멘
날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라고요!

돈 호세
맹세컨대
당신은 못 가. 카르멘,
당신은 나와 함께여야 해요.

카르멘
놓아줘요, 돈 호세... 난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아요.

돈 호세
그를 만나러 가는거군. 대답해, 그를 사랑하나?

카르멘
난 그를 사랑해요.
난 그를 사랑해요. 죽을 앞이라도 그를 사랑한다고
똑같이 말하겠어요.

팡파르와 합창
(투우장에서)
만세! 만세! 승리!
황소가 쓰러졌다.
기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승리의 투우사에게 영광을!
승리! 승리!

돈 호세
그러면 내 영혼의 안녕을 말하지.
나는 이제 내 영혼의 구원을, 당신을 잃었어.
나를 버린 당신은 그의 품으로 달려가겠지.
그에게 안겨 나를 비웃기 위해.
(단검을 찌른다.)
안 돼, 맹세코, 당신은 나를 못 떠나.
카르멘, 나와 함께해야 해.

카르멘
아뇨, 안 돼! 절대로.

돈 호세
협박하는 것도 지겹군.

카르멘
좋아요, 날 죽이거나 아니면 떠나게 해 줘요.

합창
승리! 승리!

돈 호세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악마!
나와 함께 갈 거야?

카르멘
아니! 싫어! 여기 당신이 준 반지 가져가요!
(반지를 던진다.)

돈 호세
(카르멘을 찌른다.)
이 악마같은!
*(카르멘이 쓰러져 죽는다. 투우장에서는 팡파르와
합창이 인다.)*

합창
투우사여, 조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이 싸우는 동안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가
사랑을 가득 담아 당신을 바라본다는 걸,
투우사여, 사랑이 당신을 기다린다.

돈 호세
나를 체포하시오... 내가 그녀를 죽였소.
오 카르멘! 내 사랑 카르멘!

운명의 타격

A TOUCH OF FATE

2026.5.28.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플랑크/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P 61
F. Poulenc / Concerto for Two Pianos in d minor, FP 61

말러/교향곡 제6번 a단조 ‘비극적’
G. Mahler / Symphony No.6 in a minor ‘Tragic’

지휘
요엘 레비
Conductor
Yoel Levi

피아노
이혁 & 이호
Piano
Hyuk Lee & Hyo Lee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소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소재희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Salvatore Quaranta (피렌체 극장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Silvia Careddu 수석
호른 Jacob Wilder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 악기담당 | 단원 유재식 정오준 | 악보담당 |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인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원희 김호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Prelude	권정숙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장희웅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희재 노무사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섶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